

Émile Durkheim
에밀 뒤르켐
(1858–1917)



생애

- ▶ 프랑스 로렌 지방의 유태인 랍비 집안에서 출생
- ▶ 파리 고등사범학교 진학
- ▶ 학위논문으로 **사회분업론** (1886 제출, 1893 출판) 집필
- ▶ 1887 보르도 대학에서 교육학과 사회학을 강의
- ▶ 드레퓀스 사건 등 사회참여 활동
- ▶ **사회적 방법의 규칙** (1895) 출간. 사회학의 독자성 제창
- ▶ 1898 **사회학연보** (*L'Année Sociologique*) 창간
- ▶ **자살론** (1897) 출간. 사회학적 경험 연구의 모범적 사례
- ▶ 1902 소르본느 대학 교수. 1913 “교육학과 사회학” 교수직
- ▶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1912) 출간
- ▶ 제1차 대전에서 아들과 제자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사망

인간, 사회, 그리고 법

-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와 선험적 형이상학 apriorism of metaphysics 을 거부. 제3의 길 추구
- ▶ 인간은 이기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가진다. 사회적 자아가 있기에 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
- ▶ 인간의 사회성은 사람들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것이다. **창발적 결합 creative synthesis**
- ▶ 그것은 도덕성이자 연대성이며 그 기원은 사회이다.
- ▶ 법은 도덕의 일종으로서 비교적 명확한 제재, 비교적 조직화된 제재를 수반하는 것. 반드시 국가를 전제하지 않음

사회분업론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공통의 가치관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

기계적 연대 mechanical solidarity 억압적 법 repressive law

↓ 인구증가·사회분업

유기적 연대 organic solidarity 배상적 법 restitutive law

배상적 법은 '사회공학'이 아니라, 현대적 도덕성(개인승배)을 기초로 한다.

사회학 방법의 규칙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사회적 사실 social fact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 방식과 제도

- ▶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초월한다(외재한다). 사회는 개인의 총합보다 크다.
- ▶ 사회학의 근본 규칙: 사회적 사실을 사물처럼 취급하라.
- ▶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사실(예: 법)은 그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제재(예: 처벌)의 형태로 표현된다.
- ▶ 사회학은 선입견을 버리고 사회적 사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독자적 과학이다.

자살론 Suicide

자살은 정신병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 ▶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 ▶ 독신자가 기혼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 ▶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보다 자살률이 높다
- ▶ 군인이 민간인보다 자살률이 높다
- ▶ 평화시에 전시보다 자살률이 높다
-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 하지만 종교보다 약한 변인이다.

자살의 유형

- 이기적 자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개인의 소외감, 고립감에 기인. 예: 독신 남성의 자살
- 이타적 자살** 집단의 가치나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나타나는 유형. 사회통합이 너무 강한 경우. 예: 자살폭탄 테러
- 아노미anomie적 자살**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성장(혼란) 속에서 도덕적 혼란으로 인한 자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이 무한해지고 따라서 실망도 무한해짐으로써 발생
- 숙명론적 자살**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열정이 과도하게 억압받아 발생하는 자살. 아노미적 자살의 반대 유형. 매우 드물지만 감옥 등에서 발생

범죄

- ▶ 범죄는 사회의 '정상적인' 현상이다. 사회의 연대성이 유지되려면 주기적으로 범죄의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 ▶ 또한 범죄는 기성의 규범과 가치를 변혁하는 원천이다. 범죄자의 창의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덕의 대변자가 지나치게 억압적이서는 안 된다.
- ▶ 현대 개인숭배의 사회가 될수록 형벌은 ①가벼워지고 ②개인의 자유만을 박탈하는 처벌, 즉 자유형(감옥)이 확산된다.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 ▶ 종교란 신성한 것(the sacred; 초자연적 신 아님)에 대한 신념과 의례의 통합된 체계. 애초에 종교는 사회에 대한 숭배이다.
- ▶ 종교(토테미즘)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제도이며 가장 강력한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때로는 집단적 열광을 공급한다.
- ▶ 사회의 분화와 더불어 종교는 덜 중요해졌으며 대신 과학과 “개인 숭배”가 부상한다. 현대적 종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종교는 사회생활의 기초적 범주를 제공했다. 예: 시간과 달력. 따라서 인간 오성의 기원은 사회이다.

소유권과 계약—직업윤리와 시민도덕

- ▶ 소유권은 자연권이 아니며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수익·처분권에 있지 않다
- ▶ 타인들을 배척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데 소유권의 본질이 있다. 배타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며 그 기원은 종교이다
- ▶ 계약이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계약을 만들었으며 그 기원은 종교이다
- ▶ 계약은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제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후대에 발전한다
- ▶ 상속제는 모두가 평등한 계약조건을 누려야 할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 ▶ 또한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공감의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복지를 추구해야 한다